

女性研究

The Women's Studies

2015. Vol. 88 No.1 pp. 373~402

# 마이크로크레딧 창업 지원업체의 생존율 추이 및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임은의 · 박현정 · 박은주



## 마이크로크레딧 창업 지원업체의 생존율 추이 및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임은익\* · 박현정\*\* · 박은주\*\*\*

### 초 록

빈곤탈피에 유용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특히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 창업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마이크로크레딧 창업 지원업체에 관한 실증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만을 대상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A재단의 전체 창업지원업체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 마이크로크레딧 창업 지원업체의 생존율 추이와 생존가능성에 대한 예측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 마이크로크레딧 창업 지원업체는 창업 이후 폐업에 이르는 경우가 6개월 이내 3.19%, 1년 이내 6.85%, 2년 이내 22.1%, 3년 이내 26.53%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장의 창업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폐업 가능성이 낮았고, 대졸 이상에 비하여 전문대졸인 경우가 폐업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막내자녀연령이 중학교 이상에 비하여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가 폐업 가능성이 더 낮았고, 음식 관련 창업에 비하여 서비스, 교육 관련 창업의 폐업 가능성이 더 낮았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제언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다각적인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마이크로크레딧, 창업, 폐업, 여성가장, 생존분석

\* 제1저자,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socialb@hanmail.net)

\*\* 교신저자,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hjpark@scu.ac.kr)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ej75pooh@hanmail.net)

## I. 서론

최근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기치(旗幟)로 삼고 이것의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창업에 집중함으로써 사라져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창업시장은 ‘빛과 그림자’ 현상이 극명하여 창업의 효과와 실효성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창업은 경제성을 높이고 시장에 혁신을 불어 넣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Shane and Venkataraman, 2000), 우리나라처럼 자영업 시장이 포화되어 자발적 사업기회를 찾는 기회형 창업(Opportunity Entrepreneurship)보다 취업기회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창업하는 생계형 창업(Necessity Entrepreneurship)의 비중이 높을 경우(남정민 외, 2013) 사업 실패는 곧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09년 기준 한해 창업한 개인사업자가 96만 3천명에 이른 반면,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78만 6천명으로, 국내 폐업율이 81.6%에 이른다(이유태, 2012). 또한 창업 경과별 생존율을 보면 창업 후 1년은 72.6%, 2년은 56.5%, 3년은 46.4%로,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3년 이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청, 2013). 이렇게 창업과 폐업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구조에서 한번 실패한 사업가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을뿐더러 신용불량자나 세금 연체자가 되어 재기하기가 쉽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1인당 GDP보다 적은 금액의 대출을 제공하여 빈곤층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마이크로크레딧(Gonzalez-Vega, 1998)이, 한국에서는 빈곤층뿐만 아니라 낮은 신용상의 문제로 금융서비스의 접근이 제한된 금융소외계층에게 창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가(自家)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딧은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미소금융사업, 보건복지부의 자활기금을 통한 대출사업,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사업,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사업, 근로복지공단의 점포임대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들의 지원 규모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마이크로크레딧은 특히 과거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재생

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밀착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실패를 최소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에서는 자활의지 및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소액의 창업자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창업 전·후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경영지원 등 부수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빈곤층의 낮은 인적자본 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훈련도 실시하고 있다(류만희, 2006). 이러한 노력은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업체의 1년 후 폐업율이 5.9%, 2년 후 12.4%, 3년 후 14.2%, 4년 후 19.1%라고 조사한 정영순·송연경(2008)의 연구 결과와 일반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조사한 중소기업청(2013)의 자료를 비교해 볼 때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영순·송연경(2008)의 연구결과는 특정 기관의 초창기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그동안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확대되는 등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국내 마이크로크레딧과 관련된 연구가 미흡한 점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국내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의 참여자 대상의 효과성 연구로는 류만희(2006), 정영순·송연경(2007), 정영순(2008a), 정영순(2008b), 정영순·송연경(2008), 성정현·김지혜(2009), 백학영 외(2010), 김수영·박병현(2011), 임유진 외(2014), 임은의 외(2014) 등이 있을 뿐인데, 특히 데이터 접근의 한계로 인해 양적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어 효과성 검증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마이크로크레딧과 관련성이 깊은 여성(성정현·김지혜, 2009)이라는 연구주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후 빈곤 상태에 머무는 한부모 여성가장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 창업지원이 유력한 대안으로 인식되었으며(황정임·류연구·류만희, 2006), 한부모 여성가장만을 지원대상으로 삼는 지원기관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 여성가장의 자립지원 방안으로서 창업 자체에만 관심을 둘 뿐이지 이들에 대한 창업지원의 성과나 운영상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 창업자들은 창업과 경영과정에서 재무관리의 경험 부족, 과도한 노동 강도와 가사병행에 따른 어려움, 담보 취약, 대출 확보 문제, 경영훈련 부족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여성 사업주에 비해 남성 사업주의 성공률이 1.85배 높으며(윤성욱·서근하, 2002), 폐업자의

비율도 여성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상공인진흥원, 2008). 여성 창업자의 어려움을 상정해 볼 때, 이들보다 훨씬 더 가정과 사회의 지원 네트워크가 빈약한 한부모 여성가장들의 창업 어려움과 실패의 고통은 가혹할 것이라 사료된다.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 성과를 높이고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성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업체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존율과 생존 요인을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업체들이 창업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창업 생존율이 어떻게 변화하며, 관련 특성별로 생존율 추이가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여성가장 관련 특성들이 생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여성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업체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여성가장들의 창업을 통한 자립 전략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마이크로크레딧 창업 지원업체의 생존에 관한 논의

마이크로크레딧은 제도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빈곤취약계층에게 소액의 금융 및 사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취약계층의 자기고용과 소득창출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성정현·김지혜, 2009). 마이크로크레딧은 1970년대 중반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에서 도입된 이래 빈곤층의 신용과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탈빈곤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과성에 관한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에 있어서 효과성 논의는 ‘있다’ 혹은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성의 크기에 대한 문제라고 정의내리고 있지만(류만희, 2006), 마이크로크레딧 효과에 대한 찬반 입장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한, 이를 규명하는 실증적인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마이크로크레딧의 효과성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면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담보받기 어려워져 향후 마이크로크레딧을 필요로 하는 빈곤층에게 제공될 기회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크레딧의 효과성은 경제적 차원과 심리사회적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마이크로크레딧의 주된 목적이 소득증대를 통한 빈곤탈피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 차원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정영순·송연경, 2007).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경제적 성과는 생존(정영순·송연경, 2007; 정영순·송연경, 2008)으로 보거나 매출액 혹은 순수익으로 보거나(류만희, 2006; 정영순 2008a), 유급고용인원(류만희, 2006) 혹은 수급탈피(정영순, 2008b)로 파악되었다. 매출액, 순수익, 유급고용인원, 수급탈피와 같이 사업체의 성장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 지표들도 중요하지만, 사업체의 성공적인 성장도 생존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권명중, 2000),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업체의 생존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업체의 생존은 일반적으로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Brush and Vanderwerf, 1992). 한국은 2010년 자영업자 비중이 28.8%로 OECD 평균 17.5%의 약 1.65배로 높은 상황이고, 창업 3년 뒤 생존율에 있어서도 미국 57.6%, 이스라엘 55.4%에 비해 41.0%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EM, 2012).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 사업 기회를 찾거나 개인적 관심에서 또는 정기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창업하는 기회형 창업(opportunity entrepreneurship)보다 취업기회를 찾지 못하거나 어쩔 수 없이 창업하는 생계형 창업(necessity entrepreneurship)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남정민 외, 2013). 2010년 한 해 개인사업자의 신규창업은 988,058명, 폐업은 805,506명으로, 창업자 대비 폐업자의 비율은 81.5%로 위험한 상황이며(소상공인진흥원, 2012), 2008년 국세 통계연보에서도 폐업자의 사업존속 년수는 2년 미만이 43.8%로 집계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창업의 목표는 생계유지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아 창업 성공보다는 창업 생존 전략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사업체의 생존은 자원의존이론과 조직생태이론이라는, 관점이 서로 다른 두 이론에 의해 설명된다. 먼저 자원의존이론에 의하면, 사업체가 외부 자원보유자와의 관계를 얼마나 빨리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고 희소한 외부자원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생존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한다(Child, 1974; Pfeffer and Salancik, 1978). 자원의존이론 관점에서 저소득층의 소액창업업체들은 신용이 낮고 보증력이 없어 특히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생존하기 어려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마이크로크레딧 수행기관으로부터 금융뿐만 아니라 경영지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면 자원을 보충할 수 있기에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업체의 생존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저소득층 대상 일반 창업업체의 폐업을 연구한 원종욱 외(1999)는 90%가 3년 이내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저소득층 대상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업체 연구에서 류만희(2006)는 30-40% 정도가 3년 이내에 폐업에 이르고 있다고 했으며, 정영순·송연경(2008)도 1년내 5.9%, 2년내 12.4%, 3년내 14.2%의 폐업 위험율을 보고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일반적인 폐업율보다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업체의 폐업율이 현격히 낮아 자원의존이론이 적용됨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시각인 조직생태이론의 경우, 사업체가 속해있는 업종에 창업업체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의 정도는 체증적(increasing rate)으로 증가하지만, 경쟁에 대응하는 업체의 효율성은 체감적(decreasing rate)으로 증가한다고 본다(Hannan and Carroll, 1992). 조직생태이론에서는 업체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비용절감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이 감소하게 되고, 이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사업체는 도산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Lussier(1995)는 영국 100개 대상 신생기업 연구를 통해 전망이 좋은 사업을 선택한 창업가가 이미 포화상태인 사업을 선택한 창업가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으며, 이미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사업이 현재 성장하고 있는 사업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마이크로크레딧 수행기관이 대상자 선별 시 지원업체의 업종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 2. 마이크로크레딧 여성 창업지원업체의 생존에 대한 영향요인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들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자영창업 지원 정책이 모색되어 왔다. 일차적 생계를 맡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장들은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 분절화된 노동시장에서 미숙련의 단순직 혹은 비정규직 상태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런 이유로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한부모 여성가장들에 있어서 자영 창업은 가사와 일을 병행할 수 있고 여성 특유의 기술과 서비스 분야에 적합해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인식되어 왔다(Turner, 1993). 이들 저소득 여성가장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 점포지원사업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자금 지원제도는 점포주가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어야 지원이 가능하여 지원제도의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며(황미애, 2008),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의 경우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나, 전체 지원규모가 충분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다. 그러나 어렵게 창업을 시작하였더라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 여성 자영업자들은 남성에 비해 성과가 낮은 등 창업 실패에 따른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강세영 외, 2005). 소상공인 정책자금 수혜자 중 폐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폐업 및 재창업사업자 실태조사(2008)에 의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수혜자의 성별 비율이 남성 58%, 여성 42%로 남성이 높지만, 폐업자의 경우 남성이 48.6%, 여성이 51.4%로 여성의 폐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폐업의 반대현상인 성공에 있어서도 한국 소상공인을 분석한 윤성욱·서근하(2002)의 연구는 여성창업자에 비해 남성창업자의 성공률이 1.85배 높다는 결과를 보여 창업시장에서 여성 창업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자영 창업이 고용과 소득보장 차원에서 권고되나 현실에서 이들의 실패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마이크로크레딧 여성 창업지원업체의 생존 요인을 발견하고 지속가능성을 강구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러나 마이크로크레딧 여성 창업지원업체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국내의 선행연구는 찾기가 어렵다. 이에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업체의 생존 및 성과요인(류만희, 2006; 정영순·송연경, 2007; 정영순·송연경, 2008; 백학영 외, 2010), 저소득 창업업체의 생존 및 성과요인(김경휘 외, 2008; 박미현·정영순, 2011; 박미현·김소희, 2013)을 다룬 선행연구를 포함하여 마이크로크레딧 여성 창업지원업체의 생존 요인은 무엇인지와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창업업체의 생존요인으로 창업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업체 특성을 포함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경우 소유자인 동시에 경영자인 소상공인의 경우에 창업 준비단계부터 경영단계까지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반봉식·박정기, 2002).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연령, 학력수준 등을 다루고 있다. 창업시 연령은 소액창업업체의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는데, 여성창업자의 경우 연령과 창업 성과는 부적(-)관계로 연령이 많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휘 외, 2008; 박미현·김소희, 2013). 그러나 남정민 외(2013)에서는 연령이 창업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창업 성공의 중요한 변수인 학력수준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창업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성지미·안주엽(2002)의 연구에서 교육연한이 높을수록 자영업 소득과 자영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교육수준은 창업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생존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휘 외, 2008; 박미현·김소희, 2013; Boden and Nucci, 2000; Georbellis et al., 2007). 한편 본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장의 경우에는 부양자녀와 관련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젠더와 소규모 자영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두드러진 차이는 가족상황이다. 한부모 여성 자활에 중요한 변인인 자녀수와 보호아동의 유무(박정호, 2010)는 창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데, 저소득 여성창업자를 분석한 김경휘 외(2008) 연구에서 이들의 자녀수는 평균 2명에 이르며, 자녀가 많을수록 사업체의 소득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보호아동 유무와 창업 성과와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하지 못하였지만, 보호아동이 있을 경우 정신적 차원과 육체적인 차원에서 육아와 사업체에 동시에 전념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체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경제적 특성은 창업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정영순·송연경, 2008), 기초수급자 여부, 신용상태, 주거상황을 포함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부모 여성가장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한

사회안전망으로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지만, 사회보험의 경우 소수의 여성가장만이 해당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의 경우 저임금 직종에 있음으로 인하여 자격요건의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경우 부분급여만 제공된다. 이중 기초수급자 여부와 관련하여 원종욱 외(1999)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인 생활보호대상자의 생업창업 성공률이 15.5%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정영순·송연경(2008)의 연구에서도 기초수급자 지위여부에 따른 생존율 추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생존가능성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낮은 주거비 지출은 창업 생존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가장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자가보다는 전세, 무상주택, 보증부 월세, 월세 등 취약한 주거상황에 놓여 있으며, 지출 항목 중 주거비 비율은 다른 형태 가구에 비해 2-3배 높고, 주거비가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송다영·김유나, 2008), 주거비 부담은 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신용상태는 금융기관 이용의 제약과 잔존 부채 부담을 초래해 여성 창업자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생존 효과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성정현·김지혜, 2009).

사업체 특성 또한 창업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hornhill and Amit, 2003). 특히 업종은 여성들의 자영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변수로 제시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업종에 대해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업종 분류에 대해 연구자마다 달라 모든 업종을 일일이 열거하긴 어려우나, 여성들이 집중으로 몰려있는 음식점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볼 때 이들 업종은 일반 창업자와 경쟁이 매우 격화되어 근로빈곤층의 자생력이 확보되지 않는 한, 창업 성공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 추정된다. 김정휘 외(2008) 연구에서는 업종이 월 소득에 정적(+)으로 유의하며, 여성이 다른 업종보다 음식점 창업했을 경우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경우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안주엽·성지미, 2003; 정영순·송연경, 2008). 창업자금도 생존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초기 많은 창업자금의 조달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적소에

투입할 수 있게 되어, 창업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정성한·김해룡, 2001). 반봉식·박정기(2002)은 창업 실패의 결정적 요인으로 창업자금의 부족을 지적하였으며,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도 창업자금이 많을수록 생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미현·김소희, 2013; Fairlie and Robb, 2009). 그러나 창업자금 중에서도 타인자본인 상환금은 과도할 경우 창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된다(정성한·김해룡, 2001),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 창업자금에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이 포함되어 있어 창업자금과 성과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부적(-) 관계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김경휘 외,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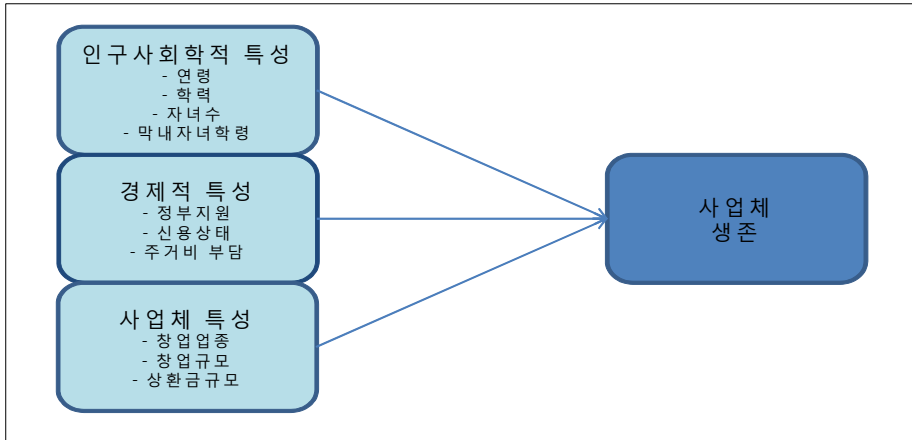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반 창업업체의 성과와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여성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업체의 생존 요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한부모 여성가장들이 운영하는 소액창업업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부모 여성가장만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의 자료를 대상으로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의 선행연구결과들을 참조하여 여성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업체의 생존율 및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여성가장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업체 특성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녀수와 막내자녀연령 등의 변수를 모형에 추가하여 그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생존기간 및 생존여부, 즉 사업지속기간 및 폐업여부이며, 독립요인들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가장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업체 특성 요인이다. 독립변수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에 연령, 학력, 자녀수, 막내자녀연령을 포함시켰고, 경제적 특성

요인에 정부지원, 신용상태, 주거비부담을, 사업체 특성 요인에 창업업종, 창업규모, 상환금규모를 포함시켰다. 연구모형에서는 독립변수들을 투입하여 각 변수들이 독립적으로 창업 생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에 근거하여 연구문제와 이에 따른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1. 여성가장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사업체 생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여성가장의 연령은 사업체 생존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여성가장의 학력은 사업체 생존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여성가장의 자녀수는 사업체 생존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4. 여성가장의 막내자녀연령은 사업체 생존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여성가장의 경제적 특성은 사업체 생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여성가장에 대한 정부지원은 사업체 생존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여성가장의 신용상태는 사업체 생존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여성가장의 주거비 부담은 사업체 생존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사업체 특성은 사업체 생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 창업 업종은 사업체 생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 창업규모는 사업체 생존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3. 상환규모는 사업체 생존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성과로서 사업체의 생존율을 분석하고,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A재단의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의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창업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무담보로 창업에 필요한 보증금과 대출금을 저리로 대출하며 창업성공을 위해 입지선정, 창업컨설팅 및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한부모 여성가장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은 최대 4천만원으로, 임차보증금 2천만원, 창업대출금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다만 일부 지원업체의 경우 추가적으로 보증금 및 창업대출금의 지원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7년간 지원되며 이자는 없고 창업대출금은 3개월 거치 5년 상환에 연이율 2%로 지원된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3년 8월까지 A재단 창업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여성가장 전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업을 준비중인 여성가장 1명을 제외한 173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는 A재단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변수값을 구축하였다.

### 3. 변수정의 및 측정

####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사업체의 생존여부와 생존기간이다. 우선 생존여부란 여성가장이 창업지원을 받아 개업한 사업장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2013년 8월까지 폐업한 사실이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생존기간이란 창업지원을 받아 개업한 사업장이 개업 이후 얼마나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약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경우 개업 이후 폐업까지 걸린 기간으로, 만약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을 경우 개업 이후 2013년 8월까지의 기간으로 측정하였다.

####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창업한 여성가장의 생존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여성가장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여성가장의 연령, 학력, 자녀수, 막내자녀연령 등을 포함하였다. 연령의 경우 창업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만 나이 단위로 연속형 변수로 하였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4년제)(기준) 이상으로 하였다. 자녀수는 자녀의 연령 상관없이 총 자녀수를 의미하며, 막내자녀연령은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재학 중인 학교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재학 이하, 중학교 재학 이상(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부모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수준을 감안하여 두가지 집단으로 구분한 것이다.

둘째, 여성가장의 경제학적 특성으로, 여성가장의 기초수급자 여부, 신용상태, 주거비부담유무 등을 포함하였다. 기초수급자 여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조건부수급자인 경우, 수급자가 아닌 경우(기준)로 구분하였다. 신용상태의 경우 파산면책,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중 등을 신용불량한 경우, 그 외 경우를 그렇지 않은 경우(기준)로 구분하였다. 주거비부담의 경우 당장 주거비 부담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장 주거비 부담이 발생하는 월세·임대주택과 그렇지 않은 자가·전세·시설거주·무상거주(기준)로

구분하였다.

셋째, 창업한 사업체 요인으로, 창업업종, 창업규모, 상환금규모를 포함하였다. 창업업종은 A재단의 행정적으로 활용하는 분류 기준에 따라 미용, 서비스, 도·소매, 교육, 음식(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서비스라고 함은 분류기준 중 미용, 도소매, 교육, 음식 등 4가지 분야를 제외한 세탁업이나 택시운송업과 같은 분야의 서비스업을 의미한다. 창업규모의 경우 A재단에서 지원한 금액(임차보증금, 창업대출금 합계)과 여성가장의 자부담 금액을 합한 액수를 말한다. 상환금 규모의 경우 여성가장이 A재단에 갚아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A재단의 창업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과 창업대출금을 여성가장에게 지원하는데, 임차보증금의 경우 건물주에게 묶여있는 돈으로 이자없이 원금만 7년 이내 갚으면 되기 때문에 부채라는 의식이 약하지만 창업대출금은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창업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진되는 비용으로, 여성가장 입장에서는 부채(빚)으로 인지되는 금액이다. 창업규모와 상환금규모는 모두 백만원 단위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 변수 구성

구 분		세부항목
종속 변수	생존여부	0: 생존(사업지속), 1: 폐업(사업중단)
	생존기간	개업 이후 폐업까지 걸린 기간, 즉 사업지속기간(단위: 개월) *관찰종료시점까지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경우 우측절단자료로 보고 2013년 8월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독립 변수	연령	창업당시 기준 만 나이(단위: 세)
	학력	1: 고졸이하, 2: 전문대, 3: 대졸(4년제)이상(기준)
	자녀수	자녀수(단위: 명)
	막내자녀연령	1: 초등학교 이하, 2: 중학교 이상(기준) *연령을 재학중인 학교를 기준으로 구성
	기초수급자여부	1: 기초생활수급(조건부수급포함), 2: 그외(기준)
	신용상태	1: 신용불량, 2: 그외(기준)
	주거비부담유무	1: 월 주거비 부담있음, 2: 월 주거비 부담없음(기준)
	창업업종	1: 미용, 2: 서비스, 3: 도·소매, 4: 교육, 5: 음식(기준) *A재단의 행정코드를 그대로 활용
	창업규모	기관에서 지원한 금액(보증금, 대출금)과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 (단위: 백만원)
	대출금규모	기관에서 지원한 금액 중 보증금을 제외하고 상환해야 하는 금액 (단위: 백만원)



####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성과로서 사업체의 생존을 분석하고, 이러한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생존분석은 연구자가 관심있는 어떤 사건(event)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자료가 주어진 경우 이를 분석하는 통계방법으로서 사건의 발생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안재익, 2010). 본 연구에서의 사건은 여성가장이 창업 이후 사업을 중단한 경우, 즉 폐업을 의미하며, 이러한 폐업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생존기간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여성가장의 창업 이후 폐업에 이르기까지의 생존기간을 분석하기 위하여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2013년 8월 당시,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를 중도 절단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막내자녀연령별, 업종별로 구분하여 생존기간을 분석하고 특성별 생존합수의 차에 대한 통계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콕스 회귀분석(Cox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카플란-마이어 분석이 모든 개체에 사건발생의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면, 실제로는 개체의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존확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박재빈, 2006). 즉 콕스 회귀분석은 카플란-마이어 분석의 계층별 분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요인을 평가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건발생, 즉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학력, 자녀수, 막내자녀연령), 경제학적 특성(기초수급자여부, 신용상태, 주거비부담유무), 사업체 특성(창업업종, 창업규모, 대출금규모)으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기술분석

우선 분석대상자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A재단 창업지원을 받은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연령은 대체로 40~49세가 다수를 차지하였다(58.8%). 39세 이하가 35.9%, 50~59세가 5.3%로 나타나, 50세 미만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가 61.8%, 전문대졸이 19.1%, 대졸 이상이 19.1%로 나타났다. 최근의 여성 고학력 추세를 고려할 때 창업지원을 받는 여성가장의 학력은 높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자녀수의 경우 1명이 27.2%, 2명이 59.5%, 3명 이상이 13.3%로 나타났다. 자녀 중 막내자녀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가 53.3%, 중학교 이상이 46.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학적 특성으로, 창업지원을 받은 여성가장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조건부수급자는 전체의 35.3%를 차지하여, 지원을 받는 10명 중 3~4명은 창업 이전 정부 지원으로 생활을 영위해나가는 상황이었다. 여성가장 중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중 또는 신용회복중인 신용불량자의 비율은 20.2%로 나타났다. 창업지원을 받은 여성가장의 64%는 월세를 지불하거나 임대주택에 거주하여 매월 주거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을 받는 여성가장의 업종은 주로 여성친화적 업종이 많았는데, 미용 창업이 32.2%로 가장 높았고, 음식 26.9%, 도·소매 16.4%, 교육 12.9%, 서비스 11.7%로 나타났다. 이들이 창업에 투자한 자본은 자부담을 포함하여 3~6천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82.6%), 이중 보증금을 제외하고 A재단에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1~2천만원이 61.6%로 가장 많았고, 1천만원 이하가 23.8%, 2천만원 초과한 경우가 14.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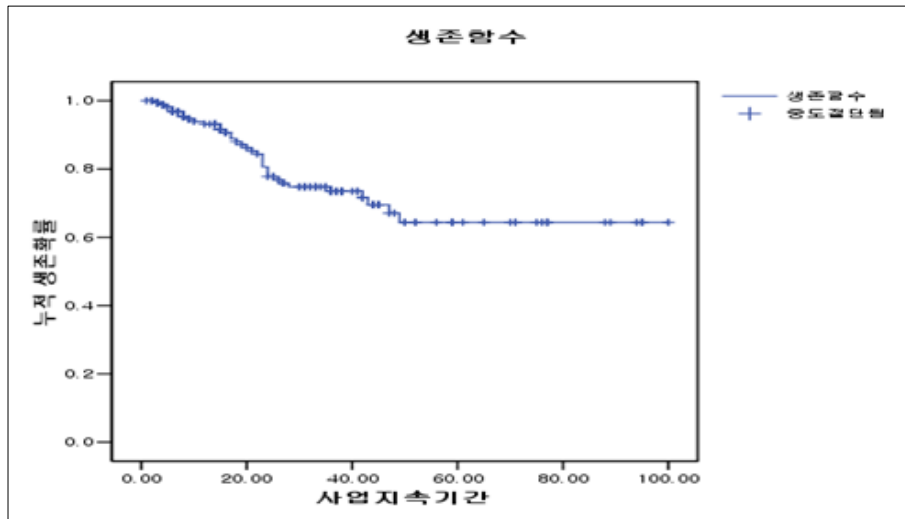
〈표 2〉 기술통계

구 분		빈도(명)	비율(%)
연령	39세 이하	61	35.9
	40~49세	100	58.8
	50~59세	9	5.3
학력	고졸 이하	97	61.8
	전문대졸	30	19.1
	대졸(4년제) 이상	30	19.1
자녀수	1명	43	27.2
	2명	94	59.5
	3명 이상	21	13.3
막내자녀연령	초등학교 이하	80	53.3
	중학교 이상	70	46.7
수급자유무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	61	35.3
	수급자 이외	112	64.7
신용상태	신용불량상태	35	20.2
	신용불량 아님	138	79.8
주거실태	월 주거비 부담있음	105	64.0
	월 주거비 부담없음	59	36.0
창업업종	음식	46	26.9
	미용	55	32.2
	서비스	20	11.7
	도·소매	28	16.4
	교육	22	12.9
창업규모	3천만원 이하	20	11.6
	3~6천만원 이하	142	82.6
	6천만원 초과	10	5.8
대출금규모	1천만원 이하	41	23.8
	1~2천만원 이하	106	61.6
	2천만원 초과	25	14.5

주: 변수별 결측치는 연령 3명, 학력 16명, 자녀수 15명, 막내자녀연령 23명, 주거실태 9명, 창업업종 2명, 창업규모 1명, 대출금규모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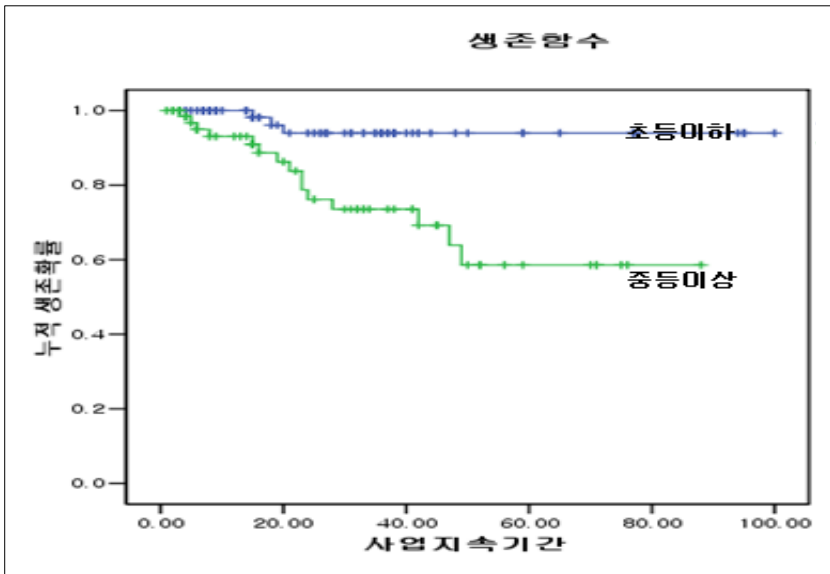
## 2. 생존기간

[그림 2]은 분석대상인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 사업체의 생존합수를 나타낸 것이다. 조사시점까지 창업한 점포의 폐업을 경험한 경우는 35명이며, 점포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138명으로, 중도절단율(percent censored)은 79.77%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창업 이후 6개월 이내 폐업한 경우는 3.19%, 1년 이내 6.85%, 2년 이내 22.18%, 3년 이내 26.5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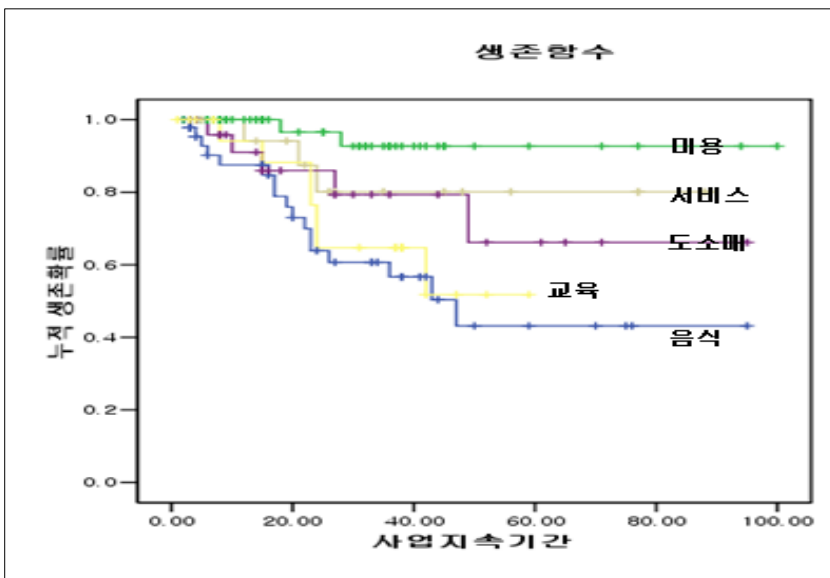
[그림 2]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 이후 생존기간

[그림 3]은 막내자녀연령별 생존합수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막내자녀연령에 따른 폐업 배율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Log-Rank chi-square=10.4275,  $p<.01$ ), 막내자녀가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의 폐업률이 중학교 이상인 경우의 폐업률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막내자녀가 초등학교 이하인 여성가장의 경우 창업 이후 20개월 이내 폐업한 경우는 6.03%로 나타난 반면, 중학교 이상인 여성가장의 경우 창업 이후 2년 이내 폐업한 경우는 23.8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Log-Rank chi-square=10.4275,  $p<.01$

[그림 3]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막내자녀연령별 창업 이후 생존기간



Log-Rank chi-square=16.0965,  $p<.01$

[그림 4]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업종별 창업 이후 생존기간

[그림 4]은 창업업종별 생존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창업업종에 따른 폐업 배율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Log-Rank  $\chi^2=16.0965$ ,  $p<.01$ ), 대체로 미용, 서비스, 도·소매, 교육, 음식 순으로 폐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창업업종이 음식관련인 경우 3년 이내 폐업한 경우는 43.35%, 47개월 이내 56.84%, 미용관련인 경우 28개월 이내 7.31%, 서비스 관련인 경우 2년 이내 19.89%, 도소매 관련인 경우 27개월 이내 20.63%, 49개월 이내 33.86%, 교육 관련인 경우 2년 이내 35.29%, 42개월 이내 48.24%로 나타났다.

### 3. 사업체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사업체 생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콕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1$ ). 창업 이후 생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연령, 학력, 막내자녀연령, 창업업종 등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폐업률이 낮았고, 대졸 이상에 비하여 전문대졸인 경우가 폐업률이 더 높았으며, 막내자녀연령이 중학교 이상에 비하여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가 폐업률이 더 낮았고, 음식관련 창업에 비하여 서비스, 교육 관련 창업이 폐업률이 더 낮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령의 경우 연령이 1살 높을수록 폐업 배율이 16.1% 낮아졌다. 학력의 경우 대졸 이상에 비하여 전문대졸인 경우의 폐업 배율이 7.21배 높았다. 막내자녀연령이 중학교 이상에 비하여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의 폐업 배율이 90.3% 낮아졌다. 그리고 음식 관련 창업에 비하여 서비스 관련 창업은 폐업 배율이 92.8% 낮아졌고, 교육 관련 창업은 90.2% 낮아졌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사업체 생존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자녀수, 정부지원, 신용상태, 주거비 부담, 창업규모, 상환금 규모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사업체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 분	B	표준오차	Wald	Exp(B)
연령	-.175	.069	6.488*	.839
학력(기준:대졸이상)				
고졸이하	.566	.841	4.827	1.762
전문대	1.976	.921	4.599*	7.210
자녀수	-.255	.354	.516	.775
막내자녀연령(기준:중학교이상)	-2.330	.860	7.339**	.097
정부지원(기준:없음)	-.172	.643	.072	.842
신용상태(기준:양호)	-.787	.715	1.212	.455
주거비부담(기준:없음)	.272	.646	.177	1.312
창업업종(기준:음식)				
미용	.104	.873	.014	1.109
서비스	-2.638	.991	7.078**	.072
도·소매	-2.125	1.357	2.452	.119
교육	-2.324	1.039	4.999*	.098
창업규모	-.040	.027	2.120	.961
상환금규모	.041	.034	1.433	1.042
-2Log likelihood	121.465			
$\chi^2$	32.259**			
자유도	14			
n	132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성과로서 생존기간을 분석하고, 사업체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논의 및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을 정리하였다.

첫째,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점포는 조사시점까지 창업한 점포의 폐업을 경험한 경우는 35명이며, 점포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138명으로, 중도절단율(percent censored)은 79.77%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창업 이후 6개월 이내 폐업한 경우는 3.19%, 1년 이내 6.85%, 2년 이내 22.18%, 3년 이내 26.53%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자영업이 3년 후 대략 절반

(46.9%)이 문닫는다는 통계(주간경향, 2015.3.31.)와 비교해볼 때 그보다는 폐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업체의 폐업률이 30~40% 정도 된다는 류만희(2006)의 결과와는 다소 유사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폐업률이 낮은 이유는 점포의 독자적인 생존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점포의 성공을 도모하기 위해 선정에서부터 운영에 이르는 수행기관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생존기간 추이에 관한 분석한 결과, 특히 1년 이내의 폐업율에 비하여 2년 이내의 폐업 위험율이 22.18%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1~2년 사이에 폐업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연령이 높을수록 폐업률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가설과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김경희 외, 2008; 박미현·김소희, 2013)를 통해 유추된 본 연구가설은 생존 자체를 본 반면에 기존 선행연구는 성과, 즉 경제적 매출액, 순수익을 측정하는데서 오는 차이라 해석된다. 따라서 생존과 성과의 개념은 구별될 필요가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오히려 연령과 생존의 관계는 노동시장에서의 이행 용이성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낮은 연령계층들은 고연령 계층에 비해 직업 선택의 기회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욕구는 상황 대응적이며 변화무쌍하게 작용하므로 한부모 여성창업자의 취업과 창업에 대한 욕구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선택될 것이다. 즉 현재 운영 중의 사업체의 수입이 또 다른 노동시장의 기회인 취업시 발생하게 될 수입과 비교했을 때 우위의 조건일 때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 때 낮은 연령계층들은 취업으로도 이동할 수 있지만, 고연령계층일 경우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므로 창업시장에 계속 머무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중고령층의 창업 실패자들이 재창업의 대처과정을 밟고 있는 경로에서도 확인된다(백재화, 2014). 연령에 따라 사업중단 확률이 다르고, 중단 이후 취업과 창업의 경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한부모 여성가장들을 대상으로 연령별 취업과 창업의 욕구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지원 프로그램의 특징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젊은 여성가장 창업자들에게는 창업실패 후 이·전직과 관련된 서비스가 필요하며, 중고령 여성가장 창업자에게는



보다 집중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에 부합한 직업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교육수준의 경우 대졸 이상에 비해 전문대졸의 폐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고졸 이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생존율이 높다는 선행연구(김경휘 외, 2008; 박미현·김소희, 2013; Boden and Nucci, 2000; Georbellis et al., 2007) 결과와 일부 일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 운영에 있어서 이들 간에 인적자본 수준과 영역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자영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과 재정관리 능력, 시장예측과 마케팅 능력, 제품 생산 및 서비스 기술, 의사결정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능력이 요구되며, 자영업 특성상 이러한 모든 능력을 창업자 혼자서 겸비해야 하는데, 대졸자의 경우는 창업 및 경영 능력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고졸자의 경우는 생산기술의 오랜 연마로 특화된 측면의 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비해 전문대졸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소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사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창업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 지속의 능력은 여성가장들의 교육수준에 따라 인적자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운영방식에 따라 자금만 지원하는 금융접근과 자금 및 경영·기술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복지접근으로 구별되는데 이처럼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들에게는 복지접근의 마이크로크레딧이 적합할 수 있으며, 그리고 지원내용과 인적자본 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넷째, 막내 자녀연령이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가 중학교 이상에 비해 폐업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전 연구가설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등 부모의 돌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경우 사업체 생존에 부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폐업률이 더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요변수와의 상호작용 가능성 등 후속연구를 통해 심도깊은 고찰을 통해 밝히는 것이 요청된다.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여성가장 사업체가 지속될 확률이 높은 점은 자녀 돌봄의 손이 많이 가는 시기에 출퇴근이 자유스럽지 못한 취업

보다는 자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선택한 결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업체의 업종은 폐업률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음식업종에 비해 서비스업과 교육업의 경우 폐업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식업의 생존률이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안주엽·성지미, 2003; 정영순·송연경, 2008) 결과와 일치한다. 일반적인 창업시장을 대상으로 한 창업 성과 및 폐업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류만희, 2006; 정영순·송연경, 2008)에서도 음식업이 가장 열악하고 폐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특히 A재단의 경우 여성가장 중심 창업지원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친여성적 업종인 미용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전체 32.2%에 이를 정도로 많은 편이었는데, 조사 결과 이들 업종의 생존율이 높은 편이 아니어서 미용업에 대한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해 주었다.

본 연구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마이크로크레딧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일한 기관의 사업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또 창업 후 폐업을 한 업체까지 전체를 망라함으로써 실제와 근접하게 생존과 생존요인 관계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가의 사회심리적 특성, 준비 과정 및 태도 등의 중요 변수를 포함시키지 못함으로써 다각적인 조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양적 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후속연구에서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강세영·유가효·홍성희(2005). “소규모 자영업의 성별 사회경제적 제약조건”. 가족과 문화. 제17권 3호. 49-83.
- 권명중(2000). “창업중소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2권 제2호. 185-208.
- 김경휘·황정임·류연규(2008).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경제적 및 비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74권 제1호. 105-138.
- 김수영·박병현(2011). “마이크로크레딧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관한 연구: SROI 기법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8권 제1호. 277-304.
- 남정민·전병준·박정우(2013). “창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준비단계 핵심요인 연구: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창업 생존에 대한 종단분석”.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0권 제5호.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7-43.
- 류만희(2006). “한국에서 소액창업지원사업(Micro-credit)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24권. 117-141.
- 박미현·김소희(2013). “중고령 여성의 자영창업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9권 제3호. 99-122.
- 박미현·정영순(2011). “중고령자 창업의 생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38권 제4호. 165-189.
- 박재빈(2006). 생존분석 이론과 실제. 서울: 신광출판사.
- 박정호(2010).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자활성과”. 사회복지연구. 제41권 3호. 163-184.
- 백재화(2014). 재창업가의 창업실패와 대처 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적 분석. 울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백학영·조성은·김경휘·박경하(2010). “창업공동체의 지속과 성장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 조합 지원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7권 제2호. 291-324.

- 반봉식·박정기(2002).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4권 제3호. 135-158.
- 성정현·김지혜(2009). “빈곤여성가장 대상 무담보소액대출사업의 효과: 생활자금을 지원한 한국여성재단 긴급지원 캐쉬 SOS 사업의 사례”.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21권. 173-201.
- 성지미·안주엽(2002).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및 주관적 평가의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제2권 3호. 101-136.
- 소상공인진흥원(2008). 소상공인 폐업 및 재창업사업자 실태조사. 대전: 소상공인진흥원.
- 소상공인진흥원(2012). 2011 소상공인 통계청. 소상공인진흥원.
- 송다영·김유나(2008). “여성가장 가족의 빈곤문제와 성인지적 탈빈곤 정책”. 한국가족복지학. 제22권. 131-159.
- 안재익(2010). 의학·보건학 통계분석. 서울: 한나래.
- 안주엽·성지미(2003). “자영업 지속기간의 결정요인”. 노동경제논집. 제25권 제2호. 1-30.
- 원종욱·백화중·홍석표·황성철·정기원·박영란·윤석원·김정근(1999). 생업 자금유자사업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성욱·서근하(2002). “소상공인 창업성공 결정요인과 성과향상을 위한 탐색적 연구”. 동아대학교 경영연구. 제15호. 19-40.
- 이윤택(2012). “소상공인 생태계 관리”. 한국금융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2년 2월. 91-112.
- 임유진·임은의·박상금·이예승(2014). “마이크로크레딧 이용 후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구주의 변화유형에 관한 분석: Q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45권. 121-147.
- 임은의·임유진·박현정(2014).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폐업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제86권 제1호. 241-279.
- 정성한·김해룡(2001). “소상공인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벤처경영연구. 제4권 제20호. 9-10.
- 정영순(2008a). “소액창업업체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3권. 531-557.

- 정영순(2008b).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소득증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피 효과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24권 제4호. 89-115.
- 정영순·송연경(2007). “소액창업업체의 생존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  
정책. 제 31권. 397-422.
- 정영순·송연경(2008). “창업이후 소액창업업체의 생존력과 생존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24권 제1호. 307-332.
- 중소기업청(2013). 2013년 창업지원사업.
- 황미애(2008). 여성창업가의 특성이 경영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황정임·류연규·류만희(2006).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을 통한 자활지원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간경향, 2015.3.31. ‘자영업,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 1060호.
- Boden, R. J. & Nucci, A. R.(2000). On the Survival Prospects of  
Men's and Women's New Business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4), 347-362.
- Brush, C. G. & Vanderwerf, P. A.(1992) A Comparison of Methods  
and Sources for Obtaining Estimates of New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2), 157-170.
- Child, J.(1974). *Management and Organization*. New York: Halstead  
Press.
- Fairlie, R. W. & Robb, A. M.(2009). Gender Difference in Business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Owners Survey. *Small Business Economy*, 33(4), 375-395.
- GEM(2012). 2012 Golbal Report. [www.gemconsortium.org](http://www.gemconsortium.org).
- Georgellis, Y., Sessions, J. & Tsitsianis, N.(2007). Pecunisary and  
Non-pecuniary Aspects of Self-employment Survival. *The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47(1), 94-112.
- Gonzalez-Vega, C.(1998). Microfinance Apex Mechanism: Review  
of the Evidence and Policy Recommendations. Ohio State  
University-Rural Finance Program, 41-57.

- Hannan, M. T. & Carrall, G. R.(1992). *Dynamics of Organizational Populations: Density. Legitimation and Compet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ussier, R.N. (1995) A non financial business success versus failure prediction model for young firm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3(1), 8-20.
- Pfeffer, J. & Salancik, G. R.(1978).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 A Resource Dependence Perspective*. New York : Harper & Row.
- Shane, S., & Venkataraman, S.(2000). The promises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 Thornhill, S. & Amit, R.(2003). Learning About Failure: Bankruptcy, Firm Age, and the Resource-Based View. *Organization Science*, 14(5), 497-509.
- Turner, C.(1993). Women's Business in Europe: EEC initiatives', in S.Allen and C.Truman(eds), *Women in Business, Perspectives on Women Entrepreneurs*. Routledge: London.

## Abstract

# The Study on Survival of Microcredit Start-up : Focused on the Poor Single Mother

Eun-Eui Yim\*, Hyun-Jung Park\*\*, Eun-Joo Park\*\*\*

Despite this fact of how microcredit is being recognized as some helpful way for one to rise from poverty especially when it comes to supporting the poor single mother for self-employed start-ups, in South Korea, empirical researches on these support services in connection with women's microcredit start-ups have been hardly conducted. In the light of that, this study first worked on Kaplan-Meier Survival Analysis and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to understand data which would describe all these services of A foundation that is proceeding with a microcredit targeting poor single mother and then, looked into survival rate trend and survivability predictors of the women's microcredit start-ups.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Kaplan-Meier Survival Analysis on the survival rate trend, close-up rate of the women's microcredit start-up amount to 3.19% in six months, 6.85% in one year, 22.1% in two years and 26.53% in three years respectively since their establishments and as for a percent censored, it turned out to be 79.77%. In addition, the study confirmed tha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urvival rate are made depending on school ages of the youngest children and types of start-up businesses.

The study applied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for learning about these factors to influence the survival of the women's microcredit start-ups and found out that the research model

---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Far East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Christian University

\*\*\* Research Fellow, Research Center,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at age, academic background, school age of the youngest child and types of start-up businesses are included in the list of key predictors. Referring to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study came up with ways to improve the microcredit programs for the poor single mothers' start-ups as arguing for how any follow-up researches should try to discuss net effects of the microcredit programs from several different angles.

**Keyword** : Microcredit, Business Closure, Poor Single Mother, Survival analysis